

1920년대 건강 및 위생 관련 기사를 통해 본 어머니 역할 내용분석 :  
조선,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Content Analysis on the Role of Mother Based on Articles about Childrearing  
in 1920s: Specifically Focusing on Articles about Health and Hygiene  
in Chosun-Ilbo and Donga-Ilbo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강 사 광 정 인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Dongduk Women's University

Lecturer : Jung In Kwa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articles in terms of childrearing focused on health and hygiene in Chosun-ilbo and Donga-ilbo in 1920s. As part of this aim we will look into the role of mothers reflected within these articles. Content analysis was used to accomplish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All these articles emphasized the prudent role of mothers and pointed to the fact that holistic knowledge was needed to perform the role of a mother effectively. In other words, mothers had to know about child disease, hygiene, breast milk, nutrition, food, snacks, sleep, exercise and security. Interestingly, the most important matter emphasized in these articles was hygiene. In 1920s, the role of mothers in generally family life was held in high regards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ir role within the framework of young children's health and hygiene was emphasized.

주제어(Key Words) : 자녀양육(childrearing), 어머니 역할(mother's role), 건강 및 위생(health and hygiene)

## I. 서론

자녀양육 영역 중 시대를 초월해 계속 중시된 영역은 건강 및 위생과 관련된 영역이다. 이 영역은 소아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1920년대에 특히 중시되었음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고상옥, 전미경, 2006; 백혜리, 2006). 1920년대에 건강 및 위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이유를 다섯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국권회복의 열망, 일본 총독부의 지배와 관리, 기독교 선교사의 영향, 서구의 근대학문 유입,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이 그것이다. 각각의 측면이 어떠한 이유로 자녀양육 영역 중 건강과 위생을 강조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상황에서 국권회복의 열망은 새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이상금, 1991), 어린이를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이자 희망의 존재로 부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어린이들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일본 총독부는 조선아동을 전쟁동원의 대상으로 보고, 건강한 유아를 튼튼하게 잘 기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조형근, 1997). 또한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자, 급격히 늘어난 일본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보건위생대책'을 만들었고(홍성찬, 2001), 이 제도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생적, 신체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위생경찰제도'를 통해 법적인 공권력을 갖고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그 당시 유입된 기독교 선교사들은 우리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조선여성의 위생교육과 어린이 건강 문제를 매개로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으며, 특히 건강한 유아를 잘 기르기 위한 어머니 역할에 초점을 두어 유아의 신체적 건강과 영양 및 위생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이덕주, 1993;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편, 1989). 넷째, 자녀양육과 관련된 근대학문으로 의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및 심리학 분야의 서구학문이 본격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자녀양육에 관한 건강과 위생의 내용에 과학적 지식을 형성해 가는 이론적 기반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영복, 1995; 정충량, 1967). 일제가 서구의 근대학문을 유입한 이유는 근대학문과 지식의 유입으로 우월한 신민을 만들고, 결국에는 식민지적 인력동원으로 사용하고자 식민지적 정책을 지식과 학문을 통해 펼친 것이었다(김진균, 정근식, 강이수, 1997). 다섯째, 산업화 및 도시화의 본격적인 진행과도 관련 있다(김낙년, 2005).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미약하기는 하나 그 당시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열

악한 위생과 인구과밀 및 기아를 유발했으며, 이로 인해 건강에 해가 되는 환경과 질병의 병원균을 만들어냈다(Loustaunau & Sobo, 2002). 그 당시 세균이론의 확산과 임상의학적 사고방식에 따라 질병을 생물학적 실체로 인식하고 질병의 원인을 신체 외부의 객관적 실체에서 찾기 시작하였는데, 질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위생의 부족'을 꼽았다.

이러한 다섯가지 현상들은 모두 유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특히 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중시하게 되었고, 이는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양육에 있어 건강과 위생을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었으며 자녀양육을 계몽하는데도 일조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를 둔 부모의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이점은 자녀의 건강과 위생에 대비하여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육아지식을 낱알이 알고 배워 익혀야만 했던 것이다.

이처럼 건강 및 위생과 관련된 영역은 자녀양육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을 이해하기 위하여 건강 및 위생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사회계층별, 연령별 우리나라 자녀양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로 양옥승, 최양미, 최경애와 윤희경(2002)의 연구와 오왕목(1984), 유안진(1994a)의 연구가 있으며, 시대의 흐름과 연관지어 여성을 향한 가사교과서와 신문 및 잡지에서 자녀양육 영역을 내용별로 분석한 연구(고상옥, 전미경, 2006; 백혜리, 2006; 신양재, 김영주, 1993; 정미라, 김명순, 박은혜, 신동주, 2006)가 있을 뿐, 자녀양육 내 특정한 영역, 즉 건강 및 위생에 주목하여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1920년대에 건강 및 위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현상을 근거로 건강 및 위생의 구체적 내용을 되짚어 볼 때, 그 당시의 건강 및 위생 관련기사의 내용 파악은 자녀양육 영역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된다. 사실 자녀양육의 시작은 어머니의 역할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미 적지 않게 논의되어 왔으나, 당시 생활사를 설명해주는 현상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신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 시기 자녀양육의 관련기사 가운데 '건강 및 위생' 영역을 통하여 '어머니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다.

각 사회와 시대의 자녀양육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이 유아기에 어떻게 양육 받았는지에 대한 회고나 과거 혹은 현재의 육아 경험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자녀양육의 실태와 그 변화를 분석한다. 또는 당시 생활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록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된 자료는 가족사나 역사적 사실의 기록, 문학

작품, 인구학적 통계, 잡지나 신문 등이다.

신문은 다른 어떠한 자료보다도 사람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르는 정보나 인식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신문은 그 사회를 비추는 일종의 거울로서 사회 구성원의 생각이나 관심사를 반영하며,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현상의 산물이자 이를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하다(김택환, 이상복, 2006). 특히 1920년대 신문은 가정생활의 근근대적 개혁과 계몽을 위하여 가정생활 및 자녀양육에 관한 기사를 고정면인 제 3면에 게재하였다. 따라서 당대 신문기사의 자녀양육 내용 가운데 ‘건강 및 위생’ 관련한 특정영역을 토대로 어머니 역할을 내용 분석하는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이 연구가 비록 ‘건강 및 위생’ 영역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명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신문매체에서 자녀양육에 관련한 지침이 끊임없이 소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신문에서의 ‘건강 및 위생’ 영역의 분석을 통한 어머니 역할의 특성은 어머니 역할의 구체성과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1920년대 건강 및 위생의 자녀양육 기사를 통해서 어머니 역할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통해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시대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연관성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구명할 것이다.

## II. 연구 방법

1920년대 신문에 나타난 건강 및 위생의 자녀양육 기사를 통해 어머니의 역할을 규명해보기 위해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내용분석 연구방법이란 기록된 자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사회과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 주로 방송 모니터나 여러 가지 종류의 공적, 사적 기록들 또는 신문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차배근, 1993; Danial, Stephen, & Frederick, 2001).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이다. 이들 신문은 본격적인 근대 신문으로 한국의 여러 중앙지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양대 신문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에,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에 창간한 신문으로서 두 신문 모두 1920년 창간이후 4차례의 발행정지와 일제 강점기의 폐간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매일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다(정진석 편, 1998). 1920년 창간직후에 동아일보의 발행부수는 1만부, 1924년부터는 2만부로 증가하였는데,

당시 2만부는 일반인 수준에서 시국동향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의 구독계층을 포괄하고 있을 정도의 양이다(동아일보사, 1975). 마찬가지로 조선일보 독자수도 1924년에 1만 5천명, 1930년에는 2만 5천명으로(조선일보 80년사 편찬실, 2000) 이는 1920년대부터 의식을 형성하고 이끄는 일반대중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지표는 많은 대중들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과 방법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1920년대에 주목한 이유는 1919년 3.1운동이 끝난 이후에 사회, 역사적으로도 민족운동과 계몽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이며, 특히 건강 및 위생의 계몽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행사활동을 벌인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 신문사에서 1920년대는 일제 식민정착에의 저항과 실력배양을 위한 계몽 운동적 특성을 지닌 시기로 구분한다(유재천, 1990). 1920년대의 일간지는 식민지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서구의 신지식을 전파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가정생활의 근근대적인 구습타파를 위해 “가정”이란 전면표제를 세워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1920년 3월 1일부터 1929년 12월 31일까지 실린 기사 중 건강 및 위생의 자녀양육에 관한 기사를 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자녀양육과 관련된 기사를 추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및 현대의 아동관 탐색연구(백혜리, 1997; 정미라 외, 2006), 신문의 유아교육 관계기사 분석연구(박선애, 2001), 자녀양육과 부모교육 관계기사 분석(신양재, 김영주, 1992)을 토대로 가정(가정교육, 육아, 양육 등), 유아(아이, 어린이, 아동, 자녀 등), 부모(어머니, 아버지, 산모, 부인 등)를 중심으로 검색어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 및 위생’ 관련 기사를 추출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서(나이토 주시치로, 2000; Spock, 1969)와 아동건강교육 교재(조경자, 이현숙, 2004), 의학 및 간호학서(홍창의, 2007), 가정학 서적(박정동 역, 1907)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두 과정을 거쳐 파악된 1920년대 건강 및 위생의 자녀양육 관련기사 수는 광고와 사건사고 기사를 제외하여 조선일보 232건, 동아일보 300건으로 총 532건의 기사가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되었다.

분석단위는 하나하나의 기사이다. 기사를 유목에 포함시킬 때에는 제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차배근 외, 2001), 하나의 기사에 여러 가지 관련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일 처음으로 거론된 내용으로 유목하였다. 왜냐하면 기고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신문기사 내용의 제일 처음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분석 유목은 Berelson(1971)이 제시한 내용분석 유목 중에서 '주제' 분석을 적용하였다. 건강 및 위생의 분석유목을 정하기 위하여 아동건강교육 서적(정미라, 배소연, 이영미, 2007), 의학서(홍창희, 2007), 가정학 서적(박정동 역, 1907; 정충량, 1967)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추출된 건강 및 위생의 주제유목은 질병, 위생, 모유와 인공영양, 음식과 간식, 수면, 운동, 안전, 기타의 여덟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어머니 역할의 분석유목을 정하기 위하여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첫번째 단계는 건강 및 위생의 주제유목을 추출하여 어머니 역할을 분석해보니 크게 여섯가지의 유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기본 건강형성의 책임자 역할, 둘째, 끊임없는 관찰자 역할, 셋째, 규칙적인 시간 관리자 역할, 넷째, 건강한 습관형성의 조력자 역할, 다섯째, 질병에 관한 적절한 대처자 역할, 여섯째, 위생적 환경 제공자 역할이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자가 앞서 파악한 여섯가지 유목에 대해 관련연구물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Gilbert와 Hanson(1983)은 미국의 부모역할에 대한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그 중 두 가지 영역인 교육 영역과 기본육구 충족영역이 어머니 역할 특성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건강한 습관형성을 위해 교육시키는 교육영역과 질병에 관한 적절한 대처와 위생적 환경을 제공해주는 기본육구 충족영역이 어머니 역할 유목에 포함된다 고 볼 수 있다. Duvall(1977)과 Cataldo(1987) 역시 부모란 자녀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이며, 자녀의 물리적 양육과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녀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 건강형성의 책임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였다. 또한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다섯 가지로 구분한 유안진(1994b)의 연구에서 그 중 두 가지의 역할이 어머니 역할 유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출산과 기본건강 책임자 역할과 신체적, 심리적 보호 및 적절한 훈육을 담당할 끊임없는 관찰자, 규칙적인 시간 관리자, 질병에 관한 적절한 대처자, 위생적 환경 제공자의 역할이 그것이다. 유희정(1995)은 부모란 자녀와 가장 최초로 밀접하게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신체를 보호하고, 의식주의 욕구 및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녀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며 적절한 자아개념을 가진 사회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어머니 역할을 끊임없는 관찰과 질병을 대처하는 역할 및 자녀의 의식주 욕구 충족을 위한 규칙적인 시간 관리 및 위생적 환경제공자 역할로 특성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치면서 본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로 여섯가지를 확고히 선정하게 되었다.

###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 1. 건강 및 위생 관련기사

192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나타난 건강 및 위생 관련기사 총 532건을 주제별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제별 내용 가운데 질병에 대한 기사가 총 285건(53.6%)으로 전체 하위주제 내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청결에 대한 기사 83건(15.6%), 모유와 인공영양에 대한 기사 68건(12.8%), 음식과 간식에 대한 기사 27건(5.1%)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7개의 하위주제 가운데 위의 4개의 내용이 전체 건강 및 위생 내용의 87.1%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타 내용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기사 수를 보이는 건강 및 위생 관련기사의 주제별 내용은 수면에 대한 기사 24건(4.5%)과 운동에 대한 기사 12건(2.3%), 안전에 대한 기사 8건(1.5%) 순으로 총 532건의 기사 중 위의 3개의 내용이 8%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1> 건강 및 위생 관련기사의 주제별 기사 수, 비율 및 순위

주 제	기사 수	비율(%)	순위
질 병	285	53.6	1
청 결	83	15.6	2
모유와 인공영양	68	12.8	3
음식과 간식	27	5.1	4
수 면	24	4.5	6
운 동	12	2.3	7
안 전	8	1.5	8
기 타	25	4.7	5
총 계	532	100.0	

이와 같이 건강 및 위생 관련기사에서는 유아의 건강 및 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는 질병의 종류와 질병의 증후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지 만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아의 건강에 대해 예방적 측면보다는 치료적 측면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 당시 '쇼아하 계사망률'이라는 전문 의학용어까지 생길 정도로 1-5세 유아들의 높은 사망률이 질병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유아의 건강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머니에게 올바른 질병의 증후와 종류 및 신체관찰법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유아를 질병 없이 건강하게 키우도록 하기 위하여 제일 많이 강조한 내용은 다름아닌 '청결'이었다. 의복, 음식, 거처, 구강, 목욕과 같은 개인청결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정을 청결히 하

고, 특히 부역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질병에 걸리지 않음 예방책이라고 하며, 이러한 책임은 어머니에게 달렸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유아에게 가장 근접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이었으며, 특히 유아의 건강과 위생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 것이다.

## 2. 건강 및 위생 관련기사를 통해 본 어머니 역할

건강 및 위생 관련기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은 어머니가 불가불 알아두어야만 하는 상식 및 지식으로 규정하였다. 날씨가 추운 때 폐렴치료법, 의사가 오기 전에 가정부인이 할 일, 어린이에 누이는 법, 유아에게 먹일 간식의 종류, 음식의 분량과 시간 등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어머니의 지식”이었으며, 의사나 교육 전문가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지식이었다. 새로운 자녀양육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의 여섯가지 역할로 규정지을 수 있겠다.

### 1) 기본 건강형성의 책임자 역할

질병의 진단, 음식과 간식에 관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의 건강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즉 어머니는 유아의 건강 형성에 있어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을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병의 진단에 관한 기사의 기본적 내용은 유아의 질병을 진단하기에 앞서 임신 중 모체가 건강하면 유아도 건강하다는 논조의 내용이다. 즉, 자녀의 건강은 유전의 영향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의 건강은 어머니의 건강만으로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건강이 자녀 평생의 건강과 관련된다고 논의한 기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국민보건의 근본은 역시 부인의 손에 달렸다. 좋은 건강은 첫째는 유전이요, 둘째는 어머니의 뱃속과 품속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인 유전에 관하여는 다시 말하기로 하려니와 유전의 사실을 떠나서 생각하여도 다만 아이를 배고 있는 동안과 기르는 동안만으로 생각하여도 아이들의 건강은 어머니의 건강으로만 결정될 수 있고 또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지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믿는다. 본란에서 아이를 가진 동안의 어머니의 건강과 아이를 젖먹이는 동안의 어머니의 건강이 어떻게 그 아이의 일생의 건강에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였고 또 아이가 어린동안의 어머니의 주의 부주의로 그 아이의 건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였으니...(중략)...건강한 아들, 딸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먼저 건강한 여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려 한다...(중략)...조선부인은 첫째로 건전한 국민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건강을 얻을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1926. 2. 27. 「부인과 건강(1)」)

그러기에 자녀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녀로 낳아야 되고, 건강한 자녀로 낳기 위해서는 결혼 전 부모의 혈통관계, 유전적 질병, 악성질병의 유무를 알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배우자와 결혼해야 튼튼한 자녀를 얻을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기본적 건강형성의 책임자 역할에 대한 논의는 1929년 조선일보가 전개하였던 생활개신 운동과(조선일보 80년사 편찬실, 2000) 1923년 동아일보가 전개한 가정개신론(동아일보 80년사 편찬위원회, 2000)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문제로서 그 논의는 ‘건강한 후손’에 대한 이야기였다. 기사들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녀의 건강여부가 결혼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혈족적 결혼을 피해 건강한 후손을 양성해야 한다.

(동아일보, 1928. 1. 6. 「家庭衛生에 對하여 건강한 상대자를 구함이 가정위생의 첫걸음이다」)

좋은 자녀를 얻으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배우자와 결혼해야 하고, 그 조상 또한 건강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한다.

(동아일보, 1929. 1. 25.)

「좋은 아들을 낳으려면 부모들의 주의, 특별히 기혼부부들에게) 우수한 남자와의 혼인만이 건실한 아이를 낳게 하며, 결혼 전에 혈통관계, 유전적 질병, 악성 질병의 유무를 충분히 검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선일보, 1929. 5. 16. 「생활개신과 건강증진」)

좋은 어머니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논의하면서 유아의 기본적인 건강형성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당시 유입된 의학이나 성과학과 같은 근대학문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근대학문은 그 특유의 전문성과 면밀함으로 유아의 기본건강형성의 책임자로 어머니의 역할을 규정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을 약으로 구하려 함은 아직 생리학과 영양학이 발달되기 전에 가지던 미신이다. 서양 사람들도 아직 이 미신에서 꽤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한다. 건강하고 약하고, 병 있고 병 없음이 모두 자기의 잘못이요, 또 자기의 힘이다. 어머니되시는 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아들딸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또 실행시킬 필요가 있다. 아들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좋은 옷을 입히는 것보다도 좋은 건강을 물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동아일보, 1926. 3. 1. 「부인과 건강(3)」)

음식과 간식에 관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의 영양 못지않게 임신부의 영양이 곧 자녀를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리고 있었다. 생후 12개월 이내 어린아이의 80%가 부모의 영양부족으로 인하여 사망한다는 이야기를 인도를 예로 들어 논의하고 있다. 그 기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인도 맹매시의 유아사망률은 실로 놀라운 현상으로 낳은 지 십이개

월 이내의 어린아이 사망률이 일천명에 대하여 팔백삼십명이라는 놀라운 수라하며 그 외 각 지방에서도 일천명에 육백명은 죽는 현상이란데 그 원인은 부모의 영양부족과 비위생적 경우에 처하여 있는 까닭이라 하며 부유계급 유아사망률은 일천명에 팔십명밖에 아니된다더라.

(동아일보, 1927. 6. 16. 「千名에 八百名, 부모의 영양부족이 원인, 印度幼兒死亡率」)

이와 같이 어머니는 자녀의 평생 건강을 형성하는 데 중대한 책임을 담당한 사람이 되었고, 유아사망과 함께 논의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였다. 그러기에 건강한 자녀를 두기 위하여 어머니가 먼저 건강할 방도를 찾아야 하고, 이는 곧 임신 전부터 운동과 영양 및 위생에 주의하여 건강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다. 건강한 자녀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암울한 식민지시기에 국권회복의 열망이 장래를 이끌어 나갈 유아에게 있음을 주목하여 볼 때,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자녀를 둘 의무와 역할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2) 끊임없는 관찰자 역할

질병, 안전, 수면에 관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로 하여금 끊임없는 관찰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아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은 곧 유아의 질병 여부를 판단하게 해주며, 유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관련된 기사내용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관찰자 역할을 해야 할 어머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발육표준과 관찰지침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발육표준이란 유아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지 개별별 성장속도를 알려주는 것이고, 관찰지침이란 유아의 질병유무를 진단하기 위하여 신체 각 부위를 자세히 관찰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어머니는 유아가 발육표준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관찰하여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유아의 울음, 피부, 대변, 수면, 웃음, 목욕, 흥위, 두위 등의 신체부위를 끊임없이 관찰함으로써 건강과 불건강을 진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음의 기사는 일본 아동보호회에서 제공한 관찰지침표의 예이다.

최근 발표한 유아의 건강 불건강 분별법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아는 1. 안색: 혈액색이 좋고 푹신푹신허게 살췌습니다. 2. 눈: 눈은 분명하며 활발하게 동합니다. 3. 전두부: 정수리는 평평하게 탄력이 있습니다. 4. 음성: 우는 소리가 강하고 높으며 쓸데 없이 울지 않습니다. 5. 젖: 젖을 잘 먹으며 토하지 않습니다... (중략)... 10. 소변: 오줌은 많이 나오며 빛이 없습니다. 11. 대변: 대변은 하루에 두세번씩 누는데 누른 빛 또는 반숙한 계란빛과 같습니다. 우유의 흰빛에 가까운 것이 유아의 건강체이니 보호자는 늘 어린아이의 건강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아일보, 1928. 5. 10. 「健康 不健康을 잠시 보아 아는 법, 일본아동에 호소해서 조사한 표」)

질병의 증후에 관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유아가 보이는 몸의 증후만 보고도 질병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기위해서 자녀의 신체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어머니가 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1920년대 자녀양육의 신문기사들은 온통 질병의 증후와 그에 따른 병명 등 의사들이 제공하는 질병에 관한 기사들로 가득했다. 기사들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모증’이란 어머니의 젖이 아닌 다른 것으로 키울 때 생기는 아이들의 병이다. 소화불량과 같은 증세가 발생한다. 즉, 식욕은 많으나 몸무게는 가벼워짐, 얼굴색이 파래짐, 피부탄력 없음, 불면증, 온기 없음, 손과 발이 차다, 숨을 가쁘게 쉰다, 결핵병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아닌 경우가 많다.

(조선일보, 1926. 12. 17. 「식욕은 많은데도 말라가는 유아, 이것은 인공영양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유아의 소모증」)

어린이에게 가장 곤란한 병은 5세 미만의 ‘중이염(귓속에 염증)’이다. 중이염의 증세는 잠을 못자고, 밤중에 일어나 울기만 함, 기운을 잃음, 귀에서 고름이 생긴다, 이것은 병세가 위중한 것이다.

(조선일보, 1927. 6. 1. 「부모가 반드시 주의할 아이들의 귓병, 모르는 사이에 중병이 된다」)

‘태독’의 증후는 머리에 딱지가 생기고 가려우므로 아이는 긁게 되고 이로 인해 고름이 생겨 균이 퍼지게 된다. 이 고름이 혈액으로 흡수되고 영양이 약해진다. 밤에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고 잠을 자지 못해 울게 된다.

(동아일보, 1928. 3. 8. 「보통 태독이라고 하는 乳兒의 頭部濕疹, 그 원인과 증세와 치료법(1)」)

어머니가 질병의 증후에 관해 잘 알고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으며, 이는 모두 질병과 연관되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신문에 보도된 유아 사망률의 최대원인은 소화불량과 위장병과 같은 질병이었다 (조선일보, 1929. 9. 7. 생명을 잃은 아기의 소화기병. 집집이 관장기를 준비하고 설사가 나거든 막지 마시고; 조선일보, 1929. 10. 13. 주의해야할 어린이 위장병. 위장병으로 적리, 이질까지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려). 쉽게 넘길 수 있는 유아의 소화불량은 중할 때에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위중한 병이 될 수 있음을 신문지상에서 통계로 알려주고 있으며, 위장병의 증후 역시 천태만상으로 많아 어머니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을 알리고 있었다. 다음은 위장병의 증후를 소개한 기사의 예이다.

아이의 위장병 중에는 토사를 하는 기색은 없이 신열이 갑자기 39도에서 40도까지 오르면서 창자가 팽만하는 급성 소아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중략)...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한 신열이 일주일간이나 계속하여 장질부사 같이 여기게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것이면 뇌막염을 일으키어 죽거나 대변이 검푸른 점액변을 섞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중략)... 대체로 대장에 고장이 생기면 뒤보는 횡수가 많아지며 뒤본 뒤가 깨닫지 못하고 아파지면서 뒤는 점점 찾아지면서 피똥을 똥니다. 이 증세가 심하면 거의 혈액 또는 점액을 섞은 혈변이 1시간 사이를 두거나 더 중하면 10분, 20분씩만에 나오므로 아이는 자리위에 그대로 뒹게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소아 이질이라 하여

신열이 39도 이상에 달하며 심장 쇠약과 뇌증을 겸하기만 하면 구역질을 시작합니다.

(동아일보, 1929. 10. 14. 「어린이 위장병과 세가지 처치법, 이것만 잘 지키면 쉬 낫는다」)

유아의 질병 증후에 대한 이와 같은 세세한 설명은 어머니를 더욱 주의 깊은 관찰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시켰으며, 어머니의 질병에 대한 무지의 결과는 “어머니의 품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무서운 병”에 걸리는 엄청난 결과를 암시하기에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 세밀한 신체 각 부분의 상태는 어머니의 주의집중적 관찰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수면에 관련된 기사 중 수면방법에 대한 내용은 자기 전에 베개와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자는 중간중간마다 유아의 배와 발이 항상 차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이불을 덮어주어야 하는 기사가 주를 이룬다. 즉, 어머니는 자녀가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자녀가 이불을 차고 자는지를 관찰하여 기관지가타루, 편도선염, 소화불량, 역리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다음은 수면시 어머니의 부주의로 일어나게 되는 질병의 종류와 이를 예방할 수면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기사의 예이다.

잘 때에 부주의하는 까닭으로부터 기관지가타루, 편도선염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잘 때에 몸을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일도 적지 아니합니다. 특별히 이 때에는 푹뭉뭉을 하기 쉬워 위장병을 많이 일으키고 어린이에게 특유한 역리도 이 때에 너무 많이 먹고 잘 때에 몸을 차게 한 것으로부터 원인이 되는 것이 올시다. 위장병으로부터 일어나는 각색 전염병도 역시 잘 때에 부주의함에서 흔히 생기게 됨으로 어머니된 이는 대단히 주의하여 이로부터는 바람이 잘 들어오는 곳에 아기를 눕이지 말고 밤에도 재삼재사 살펴어서 이불을 잘 덮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 1926. 8. 29. 「잘 때에 몸이 식으면 배탈이 나기 쉽다. 전염병과 소화불량증도 이것이 흔히 원인이 된다」)

안전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대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다. 약품을 잘못 먹었거나, 양젓물을 먹었거나, 겨울철 집안에 둔 화로에 데었거나, 얼음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져 익사하거나, 여름철 물에서 헤엄칠 때 혼자 놀도록 내버려 두는 등 어머니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주의깊게 관찰하고 위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주의할 일에 대해 당부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었다(동아일보, 1929. 7. 24. 혼자 내놓는 게 제일 위험 보호자가 반드시 따라가라, 어린이의 헤엄칠 때의 주의할 일; 조선일보, 1929. 12. 8. 어린이 둔 가정은 화로에 주의하시오). 다음은 여름철 헤엄치기 전에 어머니가 유아의 아픈 곳을 관찰하고, 수심의 깊이와 깨진 조각 등이 있는지 관찰할 것을 당부한 기사의 예이다.

헤엄치러 나가기 전에는 아이의 몸을 두루 보아줄 것입니다. 혹시라도 병기가 있는 듯하거나 눈이 충혈이 되어 있거나 한 때는 절대로 헤엄장에 가서는 안 됩니다...(중략)...해수욕장에서는 아이는 매일

아침 체온계로 체온이 얼마나 되나 알아본 후에 바다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사소한 변동이라도 체온계로서는 즉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듯한 때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강, 바다, 연못 같은 데는 물 흘러가는 모퉁과 수심을 조사할 것이며 목책이나 그릇 깨진 조각 같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동아일보, 1929. 7. 24. 「혼자 내놓는 게 제일 위험 보호자가 반드시 따라가라, 어린이의 헤엄칠 때의 주의할 일」)

이와 같이 어머니는 자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관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관찰해야 할 대상의 범위는 유아의 신체부위에서부터 유아의 건강을 해칠만한 위험한 상황과 환경까지도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세심한 관찰은 유아의 질병유무와 질병종류를 판단하거나 유아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없이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어머니에게 끊임없는 관찰을 요구한 이유는 식민지 체제와 신체규율과의 연관성을 연구했던 연구물(김진균, 정근식, 1997; 정근식, 2003)과 조선의학사 및 보건사(이영복, 1995; 홍순원, 1989)를 통해 살펴본 결과 피지배민인 조선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지배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건강과 불건강의 기준은 1920년대 후반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학교의 “개성진단록”에 기록된 내용을 조사한 조재호(1931)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정근식, 2003, p. 173). 개성진단록에는 조선인의 신체발달 상황, 신체조건, 지능, 학업성적, 취학상태, 정의情意(기질과 성격), 가정상태 등을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심지어 가족의 유전적 소양까지 조선인의 신체에 대한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동아일보 1928년 5월 10일의 「건강 불건강을 잠시 보아 아는 법, 일본아동에 호소해서 조사한 표」기사도 아동의 건강과 불건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 3) 규칙적인 시간 관리자 역할

모유, 인공영양, 이유(離乳), 음식과 간식, 수면,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시간과 규율을 강조하는 자녀양육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시간개념 없이 자녀양육을 해서는 안되며, 규칙적인 시간을 정함으로써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각각의 기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유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모유수유의 방법은 규칙적인 ‘시간젓’의 개념이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수유를 하는 것은 체기나 감기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등 유아의 건강을 해치며, 아이가 운다고 무조건 젓만 물리는 것은 유아의 건강상 큰 폐해를 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부인들은

아이가 울 때마다 젖을 주어 채하거나, 소화불량, 감기, 폐렴, 홍역까지 걸리기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기사가 상당수 게재되어 있다(조선일보, 1929. 4. 21. 어머니가 주의할 젖먹이 기르는 법. 어버이들은 좀 더 주의하시오; 조선일보, 1929. 5. 17. 생활개신과 아동보건문제. 위생에 대하여 힘쓰시다). 불규칙적인 모유수유로 인한 소화불량은 유아 사망률의 첫째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규칙적인 시간 젖 먹이기를 권고하고 있다(조선일보, 1929. 10. 29. 소아 사망률은 어떻게 예방할까? 어릴수록 사망률이 많으며, 사망의 첫 원인은 소화불량). 왜냐하면 젖먹이 아이는 저항력이 약해서 한번 질병에 걸리면 대단히 위중해 진다고 하면서, 3시간에 1번씩 시간을 정하여 젖을 먹일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목이 말라 우는 경우가 많으니 이것을 유의할 것도 함께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자라나는 유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가장 첫째 되는 조건이 규칙적인 모유수유에 있음을 알리는 기사의 예이다.

어머니의 젖으로 기르는 아기는 첫째로 시간을 정하여 젖을 먹일 것입니다. 때 없이 젖을 먹이던지 아기가 운다고 젖꼭지를 돌려 버릇하면 미처 다 소화되지 못하고 위 가운데서 썩기가 쉽습니다. 위장병에 걸린 아기들이 토한 젖에서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 것은 즉 젖이 위 가운데서 썩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젖은 반드시 시간을 정하여 적어도 세시간만에 한번씩 먹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시간이 지나았을지라도 아기가 자거든 그대로 두었다가 깨인 후에 먹일 것이옵니다.

(조선일보, 1925. 7. 24. 「여름과 아이: 음식에 대한 주의(2) 젖 먹는 아이도 갈증이 난다. 젖을 시간을 맞추어 먹일 것」)

인공영양에 대한 기사는 인공영양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룬다. 인공영양방법이란 크게 인공영양의 종류와 시기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만 2세의 유아는 어른처럼 3끼나 4끼를 먹이는데,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6시로 반드시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먹일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조선일보, 1926. 6. 27. 아이를 우유로 키울 때의 주의할 것. 분량과 방법이 틀리면 여러 가지 위대한 병이 난다 (1); 동아일보, 1928. 6. 23. 하기에 필요한 牛乳의 消毒, 우유로 기르는 애기 있는 가정에서는 꼭 주의할 일). 다음은 유아의 월령에 따른 우유와 물의 비율을 소개한 기사의 예이다.

인공영양은 애기의 건강에 대하여 대단히 위험한 것임으로 많은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주의를 구하고 노력하여도 불충분하거나 하물며 보통집 애기에게 먹이는 우유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중략)... 거의 돌이 된 애기가 아니면 먹여서는 안 되고 배나 또는 삼베로 물을 타서 먹어야 합니다. 너무 물겨 물을 타도 영양상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타는 표준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칠일까지 우유 1에 물 2, 두칠일까지 우유 1에 물 1, 두달로부터 넉달까지 우유 1 물 1, 여섯달까지 우유 2 물 1, 여덟달까지 우유 2 물 1, 열달 이후 전유 또는 우유를 4 물 1.

(동아일보, 1928. 5. 2. 「젖 부족한 어머니의 人工營養의 注意, 애기에게는 어머니 젖이 제일(1)」)

이유(離乳)에 대한 기사의 내용에서 특징적인 것은 젖을 떼는 시기에 대한 강조이다. 생후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즉 돌이 지난 후에는 젖을 떼는 것이 유아의 건강상 좋으며, 계절적으로는 특별히 가을에 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다(조선일보, 1926. 8. 31. 젖떼기에 적당한 시기는 9, 10월이 제일, 우유 같은 것을 대신 주면 젖 맛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동아일보, 1927. 9. 22. 가을은 어린이 젖 떼는데 적당해, 1년 이상 젖만 먹이면 도리어 건강에 해롭다). 다음은 이유의 시기를 생후 10개월 전후부터 준비할 것과 적당한 계절은 9-10월인 가을이라고 논의한 기사의 예이다.

돌이 지나면 대개는 젖 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아를 젖을 떼려면 벌써 난지 열달 뒤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요 그 유아의 체질과 또는 발육상태를 따라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젖 떼는 때는 기후의 관계도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젖 떼 기후는 언제가 좋으나 하면 9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1926. 8. 31. 「젖떼기에 적당한 시기는 9, 10월이 제일, 우유 같은 것을 대신 주면 젖맛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음식과 간식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과 분량을 정하여 먹이는 것이 유아의 건강상 대단히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음식을 폭식하는 것은 유아의 건강상 대단히 위험하며 조금씩 자주 적게 먹는 편이 오히려 건강에 이로움을 논의하고 있다(조선일보, 1925. 7. 28. 여름과 아이(6) 음식에 대한 주의, 저녁밥은 아무쪼록 일찍 주고 분량은 적게 할 일; 조선일보, 1927. 11. 11. 과식하지 않는 것이 장수법의 큰 비결. 아이들에게는 조금씩 자주자주 먹이에 할 것). 간식의 시간 역시 규칙적으로 먹이되 오전 10시와 오후 3시의 하루 2번이 적당하다고 보도한다(조선일보, 1925. 10. 20-10. 22. 의학상으로 본 과자와 어린이). 다음은 간식의 시간에 대해 논의한 기사의 예이다.

아이의 성장을 위하여 분량을 정하고 시간을 일정하게 하여 간식을 주면 그 아이의 영양상 좋으리라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간식의 분량은 아이의 발육정도를 생각하고 정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열시와 오후 세시쯤이 좋습니다. 물론 아침밥은 여덟시쯤에 먹어야 합니다. 또 저녁밥 후에 여러 가지 간식을 하게 하면 충치와 위의 소화나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는 세 시간에 한 번씩 간식을 하면 좋습니다.

(동아일보, 1929. 12. 15. 「어린이의 간식은 과자보다 과일, 자극이 많은 것은 이(齒)를 상한다」)

수면에 관련된 기사 중 수면시간에 관한 내용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갓난아기는 20시간 이상, 만 1세아는 17-19시간, 만 2-3세아는 14-15시간, 만 5-6세아는 12-13시간, 만 10세 전후는 적어도 10시간을 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조선일보, 1924. 12. 9. 어린아기 먹이는 젖(7) 어린아이 건강상태와 잠; 동아일보, 1927. 7. 9. 夏節과 安眠法(1)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씩 자면 건강에 알맞을까?).



질병의 예방에 관련된 기사의 내용에서도 하루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일찍 일어났을 때의 장점을 논의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아침을 먹고 휴식을 한 후 등교해야 하는 일련의 순서표를 제공해 주는 등 세밀하게 시간을 구성하여 신문에 보도하고 있는 기사도 발견할 수 있다(동아일보, 1927. 3. 12. 아이 두신 부모들의 주의할 몇 가지, 규모 있게 질서 있게 가르칠 일; 동아일보, 1927. 5. 23- 5. 24. 건강한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났나, 가정의 규율과 정결한 습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특히 함참 발육이 왕성한 아이들에게는 시간적 생활을 하게 하여 야 할 것이니...(중략)...체질이 약한 아이들은 더욱이 모든 생활에 규칙을 만들어 순서적으로 그것을 지키도록 어머니된 이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약한 아이들의 체질을 개조하는 데 일년 중에 가장 적당한 시기는 여름철이니 밤에는 여덟시부터 여덟시 반 사이에 반드시 깨우고 아침에는 다섯시 반까지 기어 일어나게 하여 매일 아홉시간 내지 아홉시간 반 가량 충분한 잠을 자게 할 것이올시다.

(조선일보, 1926. 6. 24. 「어린이의 좋은 습관을 여름에 기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고 저녁에 늦도록 놀지 말게 할 일」)

이와 같이 어머니는 자녀를 질병 없이 건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모든 자녀양육법에 있어서 규칙과 규율을 강조하여 시간관리를 엄격하게 행해야만 했다. 이러한 역할의 토대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유입된 행동주의 심리학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훈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했다. 이러한 엄격한 훈육에 대한 관심은 시간에 맞춰 우유 먹이기, 1살이 되면 이유하기 등의 유행을 낳게 되었다(김희진, 2006). 그 당시 행동주의 심리학이 우리나라 어머니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미국인들이었으며, 행동주의 심리학은 1910년대부터 193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학문이었기에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은 어머니 역할의 토대에 행동주의 심리학을 두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건강한 습관형성의 조력자 역할

질병의 예방, 수면, 운동에 관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의 건강은 건강한 습관 형성에 달렸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건강한 습관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길러주어야 할 일이며, 어머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길러줄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고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각각의 관련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사의 내용은 침입한 병원균과 미균을 소독하고, 일광욕을 규칙적으로 하며, 예방주사를 맞는 등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도하고 있

다. 그리하여 유아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여러 가지 습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습관을 길러주는 일은 어머니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조선일보, 1926. 6. 24. 어린이의 좋은 습관을 여름에 기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고, 저녁에 늦도록 놀지 말게 할 일; 동아일보, 1927. 5. 23. 건강한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났나, 가정의 규율과 정결한 습관). 다음은 유아기 때부터 지녀야 할 건강한 습관을 소개한 기사의 예이다.

몸과 의복에 공기를 쏘이며 야외운동과 야외서 잡자는 것을 힘쓰고 또 심호흡하는 습관과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운동하는 습관을 기를 것이외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미균에 대한 저항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충분히 먹되 과도하지 않게 주의하고 피곤할 때는 조금 먹을 것이요...(중략)...또 건강에 필요한 습관의 하나는 변통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외다.

(동아일보, 1926. 8. 2. 「병균예방 무엇보다도 건강의 습관」)

건강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어머니는 자녀를 아침 일찍 깨워 운동을 시키고, 저녁에는 일찍 자게 하며, 매일 규칙적인 시간표대로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5시 30분에 기상하여, 5시 45분까지 냉수마찰로 세수하고, 6시 5분까지 실내 체조와 같은 운동을 하고, 6시 15분까지 휴식하며, 6시 45분까지 공부를 하고, 7시까지 방 정리를 시키며, 아침을 천천히 먹고 40분 정도 쉬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시켜주면 건강을 증진해 갈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지켜야 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일곱 가지 좋은 습관을 소개하는 기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각 가정에서는 어린애들에게 이러한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지게 할 것이니, ① 이(齒)를 청결히 할 것 ② 음식을 적당히 먹으며 잘 씹을 것 ③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공기와 일광에 접촉할 것 ④ 시간을 정하고 적당히 잠을 잘 것 ⑤ 운동을 적당하게 하며 자세를 방정히 할 것 ⑥ 몸을 쉬게 하며 심신을 평온하게 가지게 할 것 ⑦ 할 수 있는 대로 병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하게 할 것 등 이상 7가지 습관을 지어주면 어릴 때부터 건강을 증진해 갈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1929. 11. 14. 「이러한 습관을 자녀들에게 주라. 이것만 지키면 건강. 습관은 어려서 가질수록 좋다」)

수면에 관한 기사의 내용 중 수면시 길러줄 습관을 살펴보면 유아 혼자서 재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잘 때의 단점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혼자 재우는 것의 유용성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즉, 건강한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는 유아 혼자 자는 습관을 갖도록 어머니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발육상, 위생상, 깊은 숙면을 취하기 위하여 유아 혼자 재울 것을 논의한 기사의 예이다.

어린이가 어머니 품에 얼굴이 파묻히다시피 하여 잘 것 같으면 공

기의 유동이 나쁠 뿐 아니라 어머니가 토해 놓은 공기를 어린아이가 마시게 될 것입니다...(중략)...아이는 수족을 자유롭게 자동적으로 운동을 못하게 되어 발육상 크게 손해가 됩니다. 또 아이의 침구는 매일 같이 빨아서 깨끗하게 하여 주어야 할 만큼 엄청나게 더럽히는 데 어른과 함께 잘 것 같으면 적시거나 하되 어른 이불은 간단히 세탁할 수가 없습니다...(중략)...그러므로 갓 나서부터 따로 자도록 하여 습관을 길러 줄 일입니다. 눈앞의 사랑에 얽매지 말고 장래의 건강을 생각하여 갓 나서부터 따로 재워서 기를 것입니다.

(동아일보, 1929. 9. 28. 「아이는 건강을 위하여 혼자 재워라, 정신교육에도 영향이 있다」)

운동에 관련된 기사 중 운동방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걷기 운동이 가장 좋으며, 운동의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적당한 시간으로 권고하고 있다. 운동할 것을 권고하기 위하여 신문지상에서는 추위 속에서 놀고 있는 서양아이들의 모습이나 눈 위에서 단련하고 있는 독일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도 함께 보도하고 있다(조선일보, 1926. 11. 21. 발육기에 있는 어린이 체격에 대한 주의, 적당한 운동을 시키라; 동아일보, 1927. 12. 11. 눈 위에서 단련을 해보는 '독일' 어린이).

이와 같이 어머니는 건강한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선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역할의 토대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유입된 행동주의 심리학은 영유아기의 경험과 환경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습관' 교육을 중요시하였다(Ehrenreich & English, 1972). 유아의 기본 생활습관 및 행동변화 하나하나를 숫자로 나타내고 항목화하여 측정할 후 바람직한 습관이 형성되도록 행동변화지침을 설정하고 훈육함으로써 습관이 획득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런 습관에서 중요한 덕목은 규칙성이었으며, 이는 어머니가 도와주어야 할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 5) 질병에 관한 적절한 대처자 역할

질병의 종류, 치료, 예방 등 질병에 관한 기사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의사가 제공한 기사로서 이러한 내용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지식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질병에 관해 많은 내용을 알면 알수록 위험상황에 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녀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식이 되는 것이다. 각각의 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병에 관한 기사 중에서 많이 발견되는 내용은 질병을 의사에게 보이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응급처치 할 의학적 방법에 대해 연재형식으로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1924. 12. 20- 12. 29. 어머니가 알아두실 요긴한 여러 가지 일(전8회); 동아일보, 1928. 12. 26- 12. 30. 유아의 병세를 빨리 짐작하는 법, 어머니의 알아들 의학(전4회)). 이들 기사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질병은 의사만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 어린이를 기르는 부모, 특히 어머니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녀양육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소아병의 각종 증상을 알고 있어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잘 알아두어야 할 질병의 종류로는 홍역, 풍진, 수두, 성홍열, 천연두, 단독, 장질 부사가 있으며 이러한 질병의 원인과 증후 및 간호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음은 유아의 병세를 빨리 짐작하는 법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8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4회에 걸쳐 연재한 기사 중 유아의 발열과 대처법에 대해 논의한 기사의 예이다.

먼저 어머니된 이로 매일 주의할 것은 아이가 발열할 때입니다...(중략)...이런 경우에 주의할 것은 열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아스피린이나 혹은 다른 해열제를 쓰는 것은 반드시 절도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급성폐렴과 장질부사 같은 때에 해열산을 주면 어느 정도 기한동안은 신열이 식습니다만 도리어 해열제 때문에 심장의 쇠약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 발열한 초시에 무작정으로 해열제를 먹여서 무리하게 열을 내린다면지 하면 병마의 고요한 열의 상태가 어지러워져서 의사가 정확한 진찰을 하기까지 시간이 매우 길게 되어 병을 바로 잡을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동아일보, 1928. 12. 26. 「유아의 병세를 빨리 짐작하는 법(1) 어머니의 알아들 의학」)

이 외에도 유아에게 흔히 일어나는 상황들, 예를 들면, 경기할 때, 우유 먹고 설사할 때, 바늘 삼킬 때, 가시 걸릴 때, 물에 빠질 때, 개에 물렸을 때, 모기에 물렸을 때 등의 처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다음은 의사가 오기 전까지 가정부인이 알 일에 대하여 조선일보 1924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회에 걸쳐 연재한 기사 중의 일부이다.

**경기할 때:** 글리세린으로 관장하고 그래도 경기를 계속하면 인공호흡 하라. 어린이이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니 가슴을 살살 손으로 문지르는 정도로 하라 **대, 나무조각, 탄환 들어갔을 때:** 의사에게 보이기까지 가만히 두어라. 옥도정기 바르고, 알코올로 씻고, 형질대고 붓대로 감아두어라 **찔렸을 때:** 봉산수에 솜을 적어서 두어라...(중략)...**독버섯, 독약 먹을 경우:** 곧 토하게 하라. 약 먹고 토하게 하기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먹인 후 어른의 손가락을 넣어 휘둘러 토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유 먹는 아이가 설사할 때:** 속히 의사에게 보이되, 1-2번 설사하는 것이면 우유 2, 물 1의 비례로 해서 먹었다면, 반대로 해서 먹이라.

(조선일보, 1924. 12. 11-12. 「아기위생: 의사가 오기까지 가정부인이 알 일(3)-(4)」)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어머니가 가정에서 간호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고 약의 종류에 따라 잘 먹이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보도하고 있다(조선일보, 1928. 12. 1. 사랑하는 자녀의 병을 간호할 때 알아들 일. 10가지 주의할 바를 알아두시오(1); 조선일보, 1929. 6. 20. 여름철에 어린이 병들 때. 낳기보다 기르기가 더욱 어려워). 다음은 유아에게 약을 먹이는 방법을 논의한 기사의 예이다.

**물약 먹일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반듯이 눕힌 후 머리를 바른편이나

혹은 왼편으로 향하게 하고 물약을 조금씩 흘려 넣습니다. 반듯이 누운 채로 입을 벌리고 약을 넣으면 약의 일부분이 기도로 들어가 숨이 막히기 쉽습니다...(중략)..**가루약 먹일 때** 약을 쓴 종이에서 그대로 어린이에게 먹일 때에는 별일이 없겠지만 보통 물엿 혹은 소량의 맑은 물 끓인 것을 가하여 반죽하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쓴 약을 먹일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도기제 혹은 두꺼운 유리로 만든 손가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젓 먹는 어린 아이는 위에서 말한 반죽해 만든 것을 깨끗한 손끝에 발라서 직접 입에 넣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중략)...젓 먹는 아이나 유아에게는 **환약 또는 정제**를 그대로 먹여서는 위험합니다. 매약 또는 그 외의 가정 약 중에서 환약을 부주의로 먹다가 오열을 발생케 하는 일이 종종 있으니 반드시 작게 깨뜨려 먹어야 합니다.

(동아일보, 1928. 2. 7. 「어린이들에게 약 먹이는 법, 적당한 주의만 하면 별로 힘들지 않는다」)

또한 질병의 종류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유아에게 흔히 일어나는 설사, 경기, 신열, 땀띠의 발병원인과 간호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었다. 이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은 설사를 잘 하는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대처해야 할 일들을 소개한 기사의 예이다.

입을 청결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평소 입속과 치아를 잘 닦아 주며 밥 먹기 전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을 하게 하는 것이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잘 씹어 먹게 하는 것입니다. 잘 씹어 먹으면 이와 턱의 뼈며 근육을 잘 발달하는 동시에 위액의 분비를 돕습니다. 음식의 종류는 될 수 있는 대로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먹이지 말 것은 물론이지만 소화되기 어려운 것이라도 조금씩 먹여 버릇만 하면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중략)...한꺼번에 많이 먹이는 것은 안 되지만 과실에는 비타민이 있어 소화를 도우며 변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설사 할 때에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과자는 위장이 약한 어린이에게는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팔로로 만든 것은 금해야 합니다.

(동아일보, 1927. 6. 5. 「설사 잘하는 어린이, 이렇게 하라」)

질병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판단 및 처치는 자녀에게 성장 지연, 저능아 혹은 생명을 빼앗는 등 엄청난 결과를 예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는 매우 중요한 지식이 되는 것이다(동아일보, 1927. 12. 8. 腦膜炎과 混同되는 乳兒 鉛中毒症, 어머니가 바르는 분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서운 유아의 병충). 다음은 이러한 기사를 소개한 예이다.

어린이들은 땀이 더 많이 나서 땀띠가 생깁니다. 이것을 병으로는 '한진'이라 하는 피부병입니다...(중략)...만일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한진이 다시 습진으로 변화하여 신체 중에 좀쌀만한 종기가 생깁니다. 이 종기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이 가려운 증세가 생김으로 어린이들은 습진이 걸리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몸을 틀고 발작적으로 울게 됩니다. 이것은 습진이 매우 심한 증거입니다. 이럴 때에 어머니되는 분이 그것이 습진인 줄을 알게 되면 관계없으나 무지한 어머니는 어린이가 울 때마다 배가 고파서 그런 줄 알고 젓을 물리지만 합니다. 유아의 소화불량은 대개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젓을 너무 먹이는 까닭입니다. 이 소화불량은 가끔가다가 유아의 생명을 빼앗게 됩니다.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1928. 8. 24. 「땀띠와 어린이: 땀에서 땀띠-땀띠에서 습진-습진에서 소화불량- 죽음」)

이와 같이 어머니는 자녀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하여 유아 가 걸리기 쉬운 질병에 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사가 오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임무였다. 미신이나 민간요법에 따르지 말 것이며, 반드시 의사가 제공하는 의학적인 처치방법대로 행할 행동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할의 토대는 그 당시 유입된 의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다. 의학은 특유의 면밀함과 투명함으로 질병에 대하여 세밀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부적합한 방법으로 대처했을 경우의 심각성까지 알려주었으니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질병관련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 6) 위생적 환경 제공자 역할

질병의 원인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위생관리의 부족이 그 주요원인이 된다. 위생관리의 부족과 관련된 기사들은 가정주부들의 위생지식 부족을 큰 책임으로 인식했다. 다음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가정의 구성원 그 누구보다도 가정부인의 위생지식에 대한 책임에 대해 논의한 기사의 예이다.

위험한 하기(夏期) 전염병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히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에는 각 가정의 부인네들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나하면 전염병은 대개 음식으로부터 전염되는 것이요, 음식물은 대개 가정부인들이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도 주부되는 부인 한 사람만 충분한 주의를 가지고 음식물을 취급하면 그 가정식구들의 전염병에 대한 위험을 대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주부되는 한 사람만 주의하면 딴 식구들이 여하히 주의한다하여도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기(夏期)를 당하여 주부되는 부인들에게 특별히 전염병에 대한 그들의 중대한 책임을 고조하고 그들의 주의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책임을 스스로 알게 하고 싶습니다...(중략)...위생지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1927. 7. 13. 「家庭婦人の 夏期衛生智識」)

그리하여 어머니가 알아야 하는 위생지식에 관한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식, 의복, 거처, 구강, 목욕 위생이 그것이다. 각각의 내용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 위생은 특히 여름철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위생으로써 고온다습한 기후는 음식이 부패하기 쉽고, 갈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물과 음식에 주의해서 먹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반드시 끓인 물을 먹이고, 어떤 음식이던지 부모가 먼저 맛을 보아 상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한때에 먹고 남기지 말며, 남은 음식은 아깝더라도 건강을 위하여 버릴 것을 당부하고 있다(조선일보, 1920. 6. 13. 어린이에게 제일 주의할 것; 동아일보, 1923. 6. 3. 어린이의 夏期衛生, 일기가 더워질수록 어린이의 음식을 조심하시오). 다음은 여름철 위생을 위하여 물은 끓여 먹이며, 여름철 음식은 부모가 먼저 맛

을 보아 부패의 여부를 확인하고 줄 것을 당부하는 기사의 예이다.

완전한 수도의 물이면 그대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 물이면 반드시 한번 끓여서 식힌 다음 먹어야 합니다. 보리차 물은 전날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부모 되는 이들이 지켜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일 때는 반드시 부모 되는 분이 먼저 맛을 본 다음에 먹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두, 팥빵 같은 과자 등은 그 속이 상하였는가 어떤가를 맛보아 안 다음에 주고 냉장고에 두었던 우유도 역시 먼저 부모 되는 분이 맛을 본 다음에 아이에게 먹여야 합니다.

(동아일보, 1928. 8. 4.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어린이들의 음식, 어떤 음식이든지 반드시 어버이가 먼저 맛을 봐야 해」)

둘째, 의복 위생은 특히 겨울철에 2주일이 넘게 내의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1주일에 1번씩은 반드시 내의를 갈아입으라고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가정주부는 일정한 날짜나 요일을 정해서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속옷을 갈아입을 것을 당부한다. 의복 중에서도 양말은 미균의 부착과 번식력이 가장 높으니 3일에 1번씩 반드시 갈아 신겨야 하며, 이 모든 일은 가족 전체의 건강 및 위생과 직결되어 있고 어머니의 책임에 달려있다고 거론되고 있다(동아일보, 1927. 8. 4. 미균과 병독 잘 붙는 日常衣服에 注意, 어린이에 더욱 주의하라). 다음은 내의와 양말을 규칙적으로 갈아입힐 것을 권고하는 기사의 예이다.

겨울에는 아무리 세탁하기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1주일만에는 벗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1주일 이상을 넘어서 더러운 것이 몸에 닿으면 비위생적이라 할 수 있는즉 어른이나 아이들을 물론하고 주부된 이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혹은 일요일로 하든지 월요일로 하든지하여 이례째 되는 날은 꼭 갈아입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중략)... 양말은 미균의 부착과 번식이 일층 심하고 그 중에도 발바닥에는 항상 무수한 미균이 부착하기 쉬우므로 양말은 반드시 사흘에 한 켤레씩 갈아 신어야 하겠습니까...(중략)... 주부된 이는 이러한 일을 규칙적으로 실행하여 가족 전체의 위생상태가 없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1927. 11. 19. 「한 주일에 한번씩 내의를 갈아입으라. 겨울에는 더러운 채로 입기 쉽다」)

셋째, 거처 위생은 특히 여름철과 장마철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위생영역이다. 방과 화장실 등 주변을 석회나 소독약 혹은 석유 같은 것으로 소독하여 미균과 파리의 발생을 막고, 가구와 침구 및 의복은 햇빛에 말려 위생적인 거처를 마련할 것이 거론되고 있었다(동아일보, 1926. 8. 25. 하기위생(六) 위생적 거처, 태양이 잘 들어오는 집에는 병이 없다고). 다음은 특히 장마철에 변소나 습한 곳 혹은 가구와 침구에 대하여 소독할 것을 논의한 기사의 예이다.

날이 더우고 장마가 지리한 여름 한철은 각별히 몸조심을 한다 할지라도 매우 병나기 쉬운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큰 장마가 있는 후이고 또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이 유행하는 끝이라 위생에 더욱 주의치 않으면 그 참해가 장마 이상이 안될 것을 누가 능히 기약하리오. 이

제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반드시 주의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려 합니다. 첫째로 거처에 대하여 극히 청결히 하여야 할지니 방이나 마루는 물론이요 변소, 수재, 기타 습한 곳에는 석회나 소독약, 석유 같은 것으로 잘 소독을 하여 미균과 파리의 발생을 막고 가구와 침구, 의복 등 속을 벌에 쪼여 말릴 것이올시다.

(동아일보, 1929. 2. 15. 「乳兒의 옷과 젖, 기저귀와 의복 빨래는 정하게, 인공영양은 가장 과학적으로 서양부녀 아이 키우는 법」)

넷째, 구강 위생은 젓먹이 시기부터 주의를 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하기 위하여 치아를 청결히 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유아들에게 손가락을 사용하여 양치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어른들이 쓰는 치분을 그대로 사용하여 유아가 좋지 않는 양치경험을 주는 폐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유아용 칫솔을 제공하여 양치방법을 소개한 기사의 예이다.

아이에게는 아이들 쓰는 이솔을 주라. 이를 닦으려면 이솔을 가로 쓰지 말고 위아래로 세로 써야 되며 또 아이들 쓰는 이솔은 적고 부드러운 것을 골라서 입안에서 때때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른이 쓰는 것 같은 크고 뾰뾰한 것은 입안을 상하기 쉽고 또 끌고루 닦아내기도 거북한 까닭이외다. 또 치분은 만들어 파는 약가루 보다는 소금을 붙여 구워서 세말하여 쓰는 것이 제일 유용한 듯하며 이 소금은 집에서 만들지 아니할지라도 식료품을 파는 가게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외다.

(조선일보, 1924. 10. 26. 「소아의 치아위생. 충치는 조금만 있어도 무서운 결과가 생긴다. 아이 충치는 부모의 탓」)

다섯째, 목욕 위생은 특히 어린 아기들에게 피부순환과 전신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며, 목욕온도와 목욕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조선의 가정부인뿐만 아니라 아기들의 경우에도 추운 겨울철에는 1번, 맑게는 2번 목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건강상 상당히 큰 폐해가 있으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목욕방법과 시간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그 당시 목욕탕이 거의 없었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동아일보, 1928. 1. 12. 목욕할 때의 주의; 건강과 피부의 미용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할 것(1); 조선일보, 1929. 10. 23. 추운 때에 주의할 목욕은 이렇게. 소화혈액순환을 도우나 부주의하면 생명까지 잃어). 다음은 류영준 의사가 어린 아기들의 목욕 온도와 목욕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기사의 예이다.

어린 아기들에게 한 겨울에 한두번 이상을 더 목욕시키지 않는 어머니도 많습니다...(중략)... 신진대사가 속하고 피부가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몸을 자주 씻기지 않는 것도 무엇보다도 그 아기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목욕탕이 너무 멀어서 살림을 헤치고 자주 나가기가 어려운 분은 집에서 물을 데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대로 자주 씻겨야 할지니 그 온도는 저온으로 습관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사람은 삼십구도로 사십도 가량이요, 서양사람은 그 이하의 온도가 보통이라 합니다. 목욕을 시킬 때에는 처음에 더운물을 떠다 부은 채로 그대로 씻기지 말고 10분 동안 목욕을 시키면 5분 만에 한번 더 온물을 더 부어야 물에 적당한 온도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조선일보, 1926. 1. 18. 「가정위생에 대하여 (2) 류영준」)

이와 같이 어머니는 위생적 환경 제공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토대는 그 당시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열악한 비위생적 환경에서 기인된다. 192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위생과 관련된 기사들을 끊임없이 보도하였는데, 대부분의 기사는 위생 선전, 위생 활동사진, 위생 환등회, 위생 강연회, 위생 연극 등 현재 당면한 위생 상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위생적 생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침과 실제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1923년부터 1924년까지 매일 1일과 15일을 파리 잡는 날로 정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파리나라를 토벌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조선일보, 1923. 6. 2. 1일, 15일은 파리 잡는 날이라 1만원 예산으로 파리나라를 토벌, 경기도 경찰부 위생계에서; 조선일보, 1924. 5. 28. 1일, 15일은 파리 잡는 날. 일반 시민도 주의). 정부는 파리 잡기를 장려하여 파리채를 일반 시민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파리를 많이 잡아오는 사람을 추천하여 상여금도 주고 상품도 주는 일련의 행사들이 줄을 이었다(조선일보, 1921. 5. 3. 파리채 1만5천본 경성부내 배포. 경성부 위생계; 조선일보, 1921. 5. 10. 蠅軍 토벌 別法. 파리 잡아오는 자는 추천으로써 상여금; 조선일보, 1923. 2. 2. 蒼蠅을 멸종. 파리 3백마리에 성냥 1갑씩 상급; 조선일보, 1923. 4. 29. 인천에 除蠅 勵行. 청결과 파리 예방을 엄중히 장려한다고; 조선일보, 1926. 3. 15. 파리사냥 시작. 평양경찰서에서).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당대 ‘위생’은 핵심적 과제였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의 어머니 역할에서도 그대로 강조된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여섯가지의 어머니 역할은 건강 및 위생 관련기사의 주제별 분석유목과 서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건강 및 위생 분석유목과 어머니 역할 분석유목과의 연관성

건강 및 위생 분석유목	어머니 역할 분석유목
질병	기본 건강형성의 책임자
청결	끊임없는 관찰자
모유와 인공영양	규칙적인 시간 관리자
음식과 간식	건강한 습관형성의 조력자
수면	질병에 관한 적절한 대처자
운동	위생적 환경 제공자
안전	
기타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강 및 위생 분석유목 중에서 어머니 역할 분석유목과 가장 많이 연결된 항목은 ‘질병’과 관련된 항목이다. 이는 그 당시 어머니 역할 중 ‘질병’과 관련한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신문기사

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수면’과 관련한 항목 역시 어머니 역할 중 중요한 양육지식으로 여겨진 것을 볼 때, 많은 어머니들에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녀양육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상에서 분석한 여섯가지의 어머니 역할은 식민지 시대의 가족구조와 어머니상과 연결되어 있다. 1920년대의 가족구조는 핵가족의 형태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핵가족이 정착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시기였다(김혜경, 2003; 이화형 외, 2004). 핵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현모양처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홍양희, 1997), 특히 어떻게 하면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튼튼하게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현모’ 즉 바람직한 어머니상에 두드러진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국가의 노동력 동원의 대상으로 여겼던 일제 식민지 정책적 측면에서나, 그 당시 기독교 선교사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한국의 비과학적이고 비능률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적 현모양처가 되도록 교육시킨 것기도 연결된다. 민족주의적 측면에서도 역시 나라 잃은 국운에 빠진 상황에서 자녀에게 민족발전의 희망을 가지면서 바람직한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가와모토 아야, 1999). 이는 젊은 어머니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이 국가의 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었고, 국권 회복의 기대가 바로 현명한 어머니에게 달린 것으로서 바람직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대단히 컸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2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나타난 자녀 양육 기사 중 건강 및 위생 영역을 토대로 어머니 역할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건강 및 위생 관련유목과 어머니 역할 유목과의 관련성, 기사 분석을 통한 어머니 역할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 및 위생관련 유목과 어머니 역할 유목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본 건강형성 책임자 역할은 질병, 음식과 간식 유목과 연관이 있었고, 끊임없는 관찰자 역할은 질병, 수면 및 안전 유목과 관련이 깊었다. 규칙적인 시간 관리자 역할은 질병, 모유와 인공영양, 수면 유목과 연관되었고, 건강한 습관형성의 조력자 역할은 수면, 운동, 기타 유목과 관련이 있었다. 질병에 관한 적절한 대처자의 역할은 질병 유목과 상당수 관련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위생적 환경 제공자 역할은 질병, 청결 유목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었다. 이렇듯 건강 및 위생관련 유목을 분석해보면 모든 유목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시하였고, 그 역할을 특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사분석을 통한 어머니 역할의 특성은 유아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씩씩하고 위생적으로 기르기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즉, 모체의 건강이 곧 유아의 건강이기에 튼튼한 모체를 만들어 유아의 기본건강을 평생 책임져야만 했다. 또한 유아의 건강유무를 판단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유아와 그 주변을 끊임없이 관찰해야만 했으며, 질병 없이 기르기 위해서 규칙적인 시간과 규율을 가지고 자녀양육을 해야만 했다. 한편 건강이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에 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좋은 습관 기르기에 주력해야 하며, 각종 질병에 대한 온갖 지식을 알아 위급 상황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만 했다. 그 당시 유아질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비위생적 환경을 개선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신문기사에서는 연일 새로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알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위생'이었다. 왜냐하면 비위생적 자녀양육의 결과는 죽음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환원되어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위생의 범위는 일상생활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논조는 위생적인 어머니 역할의 강조를 넘어서 자녀가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역할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세심함과 완벽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심함과 완벽함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역할이란 시간을 정한 모유수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이유시기, 부패를 측정하는 우유 감별법과 설탕 넣는 비율, 적절한 목욕물의 온도, 유아신체와 위험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찰, 시간표에 따르는 하루일과, 규칙적인 음식 및 간식의 시간,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 등 무한하였다.

결과적으로 1920년대 건강 및 위생에 관한 자녀양육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세심한 어머니 역할의 강조이며, 올바른 어머니 역할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의 범위는 대단히 넓었다.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위한 지식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민족발전을 위함이라고 말하며(동아일보, 1925. 8. 28- 10. 9. 민족발전에 필요한 어린이 기르는 법), 특히 국권을 상실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의 건강문제는 개별적인 가정사를 넘어서 민족발전의 바탕이라는 태도에서 더욱 부각된 것이다. 국가의 미래이며 희망이라는 가치에 의해 어린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은 존중되었고, 강화되었으며,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튼튼하게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한편 일본의 총독부에서는 전쟁동원의 대상과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하여 조선아동의 건강에 일정한 관심을 보였

으며, 특히 위생경찰제도라는 공권력을 통해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를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의 지식과 행동에 상당한 관심을 드러냈다. 또한 그 당시 산업화와 도시화의 전개 및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유아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우리사회에 때맞춘 근대과학의 유입은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자녀양육 지식보급에 활기를 띠는 밑바탕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기독교 선교사들 역시 우리사회의 비위생적 환경과 영양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고, 위생적이며 영양학적인 육아지식의 보급으로 전도를 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다섯가지 입장, 즉 국권회복의 열망, 일본 총독부의 지배와 통치, 근대과학의 유입, 기독교 선교사의 활동, 산업화와 도시화의 전개 모두는 그 당시 어떻게 하면 유아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기르기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방법을 젊은 어머니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 각 입장들의 숨은 목적은 달랐으나, 그것은 현상학적으로 건강한 어린이, 우량아 형성을 위한 자녀양육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머니 역할의 내용을 유사하게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192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나타난 자녀양육 기사 중 건강 및 위생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고, 어머니의 역할은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구성되며 강화되어 나타난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즉, 1920년대 건강 및 위생의 자녀양육 내용과 그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양육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논의는 국권회복과 문명개화의 책무를 지닌 영웅을 생산할 소임을 띤 어머니에게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교육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어머니 교육은 의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심리학 등 각기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담당하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과학적이고 규칙적인 자녀양육법에 관한 것이었다.

끝으로 추후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반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신문이었고, 연구기간의 범위는 1920년대로서 10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살펴보았기에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폭넓은 자료적 탐색과 심층적 분석이 이어져 나간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자녀양육 내용 가운데 '건강 및 위생' 관련한 특정영역을 토대로 어머니 역할을 분석하였기에 1920년대 어머니 역할의 일부분만 조명되어 일반적인 어머니 역할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양육 전체 영역을 통해 본 어머니의 역할을 심층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 참고문헌

- 가와모토 아야(1999). 한국과 일본의 현모양처 사상: 개화기로부터 1940년대 전반까지. 심영희, 정진성, 윤정로(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pp. 221-244). 서울: 나남출판.
- 고상옥, 전미경(2006). 1920-30년대 가사교과서 육아단원의 외형 및 내용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2), 135-149.
- 김낙년(2005). 식민지시기 공업화의 전개, 이대근, 이영훈, 박이택, 박기주, 김재호, 이현창 외(편).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조선후기에서 20세기 고도성장까지**(pp. 283-315). 파주: 나남출판.
- 김진균, 정근식(1997). 식민지 체제와 근대적 규율. 김진균, 정근식(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pp. 13-29). 서울: 문화과학사.
- 김진균, 정근식, 강이수(1997). 보통학교 체제와 학교규율. 김진균, 정근식(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pp. 76-116). 서울: 문화과학사.
- 김택환, 이상복(2006). **신문의 파워**.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혜경(2003). 식민지 조선에서의 핵가족 개념의 도입과 젠더규범. 김귀옥, 김동노, 김수태, 김필동, 김혜경, 박승길 외(편). **한국사회사 연구**(pp. 197-227). 서울: 나남출판.
- 김희진(200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과 지원**. 서울: 파란마음.
- 나이토 주시치로(2000). **(마음이 따스한 사람으로 키우는) 육아의 원리**. 소재규(역). 서울: 한림토틀북. (1992년 원저발간)
- 동아일보 1920. 4. 1 - 1929. 12. 31
- 동아일보사(1975). **동아일보사사** (1). 서울: 동아일보사.
- 동아일보 80년사 편찬위원회(2000). **민족과 더불어 80년: 동아일보 1920-2000**. 서울: 동아일보사.
- 박선애(2001). 신문의 유아교육 관계기사 분석: 1980.1-2000.10. C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동(1907). **신찬 가정학**. 서울: 중앙서관.
- 백혜리(1997).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혜리(2006). 해방 전 한국인의 아동관 변천: 1876-1945.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391-417.
- 신양재, 김영주(1992). 한국 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내용분석(I):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동아·조선 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4), 249-260.
- 신양재, 김영주(1993). 한국 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내용분석(II): 1920년 대부터 1970년대의 동아·조선 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2), 159-175.
- 양옥승, 최양미, 최경애, 윤희경(2002). 우리나라 만 3, 4, 5세 유아의 양육실태 조사. **가족과 문화**, 14(2), 85-103.
- 오왕목(1984). 사회계층에 따른 육아방식에 관한 일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1994a).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안진(1994b). **아동양육: 육아론의 증보, 개정판**. 서울: 문음사.
- 유재천(1990). **한국 언론과 이데올로기**.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유희정(1995). 부모자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가족과 한국사회**(pp. 215-254). 서울: 경문사.
- 이덕주(1993).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사: 1921-1993**.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이상금(1991). **한국근대유치원교육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영복(1995). **간호사**. 서울: 수문사.
- 이화형, 허동현, 유진월, 맹문재, 윤선자, 이정희(2004). **근대 여성의 삶을 만나러 가는 길: 한국 근대여성의 일상문화 8. 가정위생**. 서울: 국학자료원.
- 정근식(2003). 식민지 지배와 신체규율. 김귀옥, 김동노, 김수태, 김필동, 김혜경, 박승길 외(편). **한국사회사연구**(pp. 169-195). 서울: 나남출판.
- 정미라, 김명순, 박은혜, 신동주(2006). **한국의 현대적 아동관에 대한 탐색**. 서울: 창지사.
- 정미라, 배소연, 이영미(2007). **영유아를 위한 건강 및 영양 교육**. 파주: 양서원.
- 정진석(1998).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 모음**. 서울: LG상남 언론재단.
- 정충량(1967). **이화 8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경자, 이현숙(2004). **유아건강교육**. 서울: 학지사.
- 조선일보 1920. 3. 5 - 1929. 12. 31.
- 조선일보 80년사 편찬실(2000). **조선일보 80년사**. 서울: 조선일보사.
- 조형근(1997). 식민지 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김진균, 정근식(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pp. 170-221). 서울: 문화과학사.
- 차배근(1993). **사회과학 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 차배근, 오진환, 정진석, 이광재, 임준수, 신인섭(2001). **우리 신문 100년**. 서울: 현암사.
- 한국기독교사연구회(1989).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 홍성찬(2001). 해방이전의 한국경제. 윤석범(편). **한국경제론**

- 강의(pp. 35-55). 서울: 세영사.
- 홍순원(1989). **조선보건의사**. 서울: 청년세대.
- 홍양희(1997). 일제시기 조선의 현모양처 여성관의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창의(2007). **소아과학**. 서울: 대한교과서.
- Berelson, B.(1971).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 Cataldo, C. Z.(1987). *Parent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Child-rearing concepts and program content for the student and practicing professional*.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Daniel, R., Stephen, L, & Frederick, F.(2001). *Analyzing media messages*.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배현석(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년 원저발간)
- Duvall, E. A.(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J. B. Lippincott Company.
- Ehrenreich, B., & English, D.(1972). *For her own good: 150 years of 'experts' advice to women*. New York: Anchor Press.
- Gilbert, L. A., & Hanson, G. R.(1983).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mong working peopl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eas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203-212.
- Loustaunau, M. O., & Sobó, E. J.(2002). *The cultural context of health, illness, and medicine*. London: Bergin & Garvey. Inc. **건강질병의료의 문화분석**. 김정선(역).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7년 원저발간)
- Rollet, C., & Morel, M.(2002). *Des Bebes et des hommes: traditions et modernite des soins aux tout-petits*. Paris: Albin Michel S. A. **출산과 육아의 풍속사**. 나은주(역). 서울: 사람과 사람. (2000년 원저발간)
- Spock, B.(1969). *The common sense book of baby and child care*. New York: Pocket Books. Inc. **스포크 박사의 육아전서**. 김효주(역). 서울: 정음사. (1946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09년 4월 1일

심사시작일 : 2009년 4월 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5월 14일